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2011년 12월 pp.45~68
한국세무학회

이익지속성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 GAAP 대 IFRS -

문현주**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도입한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지속성 차이를 한국회계기준(K-GAAP)과 비교분석하였다. 표본선정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K-IFRS를 조기도입한 유가증권상장기업 32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고 이에 대응되는 통제집단은 K-GAAP 적용기업으로 동일연도, 동일업종, 자산규모가 유사한 64개 기업을 추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익의 지속성은 현재이익이 미래이익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Atwood et al.(2011)이 FASB와 IASB의 개념적 체계를 통해 이익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현재 이익(보고이익)과 미래 이익(보고이익, 현금이익)과의 연관관계로 초점을 두어 그들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K-IFRS를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한 기업으로 표본선택이 무작위추출(random selection)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Heckman(1979)의 2SLS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현재 보고이익이 양인 경우에 미래 보고이익과의 지속성은 K-GAAP보다는 K-IFRS 적용시가 이익의 지속성이 더 높았지만 미래 현금이익과의 지속성은 오히려 K-IFRS보다는 K-GAAP 적용시가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보고이익이 음인 경우에 미래 이익(보고이익, 현금이익)에 대한 예측력 계수값이 K-IFRS 보다는 K-GAAP 적용시가 더 높음을 볼 수 있었지만 계수값의 동질성 검정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K-GAAP이 K-IFRS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더 있다고 결론짓기는 무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2011년도 국내의 모든 상장법인이 K-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 K-IFRS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K-GAAP과 비교분석한 초기연구로써 공헌도가 있다고 본다. 비록 조기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지만 2011년 의무도입 기업들이 K-GAAP에서 K-IFRS 전환시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을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주제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 이익지속성, 조기도입

* 본 연구는 2011년도 전문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임.

** 전문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moon7840@sunmoon.ac.kr, 041-530-2574

I. 서 론

국제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인해 자금이동이 용이하게 되었지만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된 회계기준은 국제자본의 원활한 흐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럽연합중심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 세계적인 단일기준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도 회계투명성을 통한 재무제표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 등을 이유로 국내의 모든 상장기업들도 2011년도부터 도입하고 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은 120여개 국가¹⁾들이 도입 또는 도입예정에 있는 추세이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공정가치 평가확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경제적 실질 강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기존의 회계원칙과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회계기준(이하 “K-GAAP”)나 미국회계기준처럼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규정중심(rule-based)의 기준체계가 아닌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기준체계이다. 원칙주의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실무지침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중요시 여기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세계적인 수용 추세는 다국의 학계 또한 실무계의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다국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이익관리, 경영자예측 오차, 이익의 지속성, 손실에 대한 적시성, 보수주의 등을 주제로 회계정보의 질적 개선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Ashbaugh and Pincus, 2002 ; Barth et al., 2008 ; Ernstberger et al., 2008 ; Chen et al., 2010 ; Ismail et al., 2010 et al.).

Atwood et al.(2011)은 국제회계기준과 자국회계기준하의 이익관리와 경영자 예측오차의 차이는 두 기준하의 이익의 지속성 차이를 동기로 보고 있다. Haverty(2006), Ding et al.(2007), Hopkins et al.(2008)은 국제회계기준과 자국회계기준하의 보고된 이익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두 기준하의 상이한 재무보고의 유연성(flexibility)차이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에 보고된 이익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이익의 지속성이 자국회계기준에 보고된 이익과 차이가 있음을 보고 있다. 이익의 지속성은 Atwood et al.(2011)이 주장한 FASB와 IASB의 개념적 체계²⁾를 통해 이익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현재 이익과 미래 이익과의 연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익의 지속성은 회계정보의 질적 개선을 대변하는 기본적인 속성 뿐만 아

-
- 1) 호주, 남아공 2005년 도입, 중국 2007년 도입, 브라질 2010년 도입, 한국, 캐나다, 인도 2011년 도입, 멕시코 2012년 도입 예정, 대만 2013년 도입예정, 2014년 미국과 일본 도입예정에 있다.
 - 2) 재무보고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FASB, 1978, Con 1 ; IASB, Paragraph 10).

나라 재무보고의 개념적 체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K-IFRS의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2011년도부터 의무도입시기를 맞아 회계정보의 질적 개선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몇 해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1항 1호)에 따라 2011년도 K-IFRS를 의무도입하기 이전에 기업들로 하여금 조기도입의 자율권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허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K-IFRS조기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지속성의 차이를 Atwood et al.(2011)의 동일한 연구방향으로 K-GAAP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K-IFRS를 도입한 기업을 표본기업으로 보고 동일연도, 동일업종, 자산규모가 유사한 K-GAAP 적용기업을 통제기업으로 두어 분석하였다.

K-IFRS를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표본선택이 무작위추출(random selection)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Heckman(1979)의 2SLS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현재 보고이익이 양인 경우는 K-GAAP보다는 K-IFRS 적용시 이익지속성이 더 높았으며 이는 현재 보고이익이 K-GAAP보다는 K-IFRS 적용시 미래 보고이익에 대한 예측력이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 현금이익에 대한 예측력은 오히려 K-IFRS보다는 K-GAAP 적용시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보고이익이 음인 경우에 미래 이익(보고이익, 현금이익)에 대한 예측력 계수값이 K-IFRS 보다는 K-GAAP 적용시가 더 높음을 볼 수 있었지만 계수값의 동질성 검정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는 K-GAAP이 K-IFRS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더 있다고 결론짓기는 무리라고 본다.

K-IFRS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사례연구에 국한되고 있어 본 연구는 K-IFRS의 도입에 따른 이익의 지속성을 K-GAAP을 비교분석한 국내 초기연구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분석결과를 통해 후발도입 기업들, 재무분석가, 규제기관, 투자자, 채권자 등으로 하여금 K-IFRS 전환시 K-IFRS 적용에 따른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각국마다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2011년도부터 의무 도입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의 주제를 보면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들의 재무적 특성과 회계정보의 질적 개선여부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초기연구로 Ashbaugh and Pincus(2001)는 재무분석가의 예측오차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후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Ernstberger et al.(2008)은 국제회계기준보다는 U.S. - GAAP 적용시 오히려 예측오차가 적다고 주장하였다.

Tendeloo and Vanstraelen(2005)은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는 기업 간에 이익조정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두 기업 간에 이익 조정 간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면서 두 회계기준으로 산출된 회계정보의 질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Hung and Subramanyam(2007)도 IAS를 도입한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자국회계기준(독일회계기준)하에 있는 기업과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IAS를 도입한 기업의 순이익과 순자산이 자국회계기준으로 산출된 것보다 변동성이 컸고, 순이익과 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이 더 높지도 않았으며 이익의 지속성도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IAS가 자국회계기준보다 회계정보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회의적임을 주장하였다.

Barth et al.(2008)은 IFRS를 도입한 21개국의 기업과 자국회계기준(미국기업은 제외)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적 차이를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IFRS를 적용한 기업이 자국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보다 이익조정 수준이 더 낮았고, 손실에 대한 적시성이 높았으며, 회계정보에 대한 가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Chen et al.(2010), Jeanjean and Stolowy(2008)은 IFRS를 의무적으로 채택한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IFRS를 적용한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이 더 높고, 손실에 대한 적시성도 낮았음을 제시하였다.

Christensen et al.(2008)은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의무적으로 도입한 기업간에 이익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발적 도입한 기업은 이익유연화가 감소하고, 가치 관련성이 향상되었으며 손실에 대한 적시성이 증가했지만, 의무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오히려 이익유연화가 증가하고 가치 관련성은 감소했으며 손실에 대한 적시성도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IFRS의 도입동기가 회계정보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Gordon et al.(2008)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IFRS의 도입 기업과 U.S. - GAAP을 적용한 기업간의 이익의 질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발생액의 질, 이익의 지속성 등이 IFRS의 도입 기업과 U.S. - GAAP을 적용한 기업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twood et al.(2011)은 IFRS도입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 차이를 U.S.-GAAP을 적용한 기업과 자국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IFRS를 도입한 기업이 U.S.-GAAP과 자국회계기준을 사용한 기업에 비해 이익지속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IFRS의 우수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Ismail et al.(2010)은 말레이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FRS의 도입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에 이익의 가치 관련성이 증가했으며,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은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Balsari et al.(2010)은 터키 기업을 대상으로 본 결과 IFRS 도입이전에 비해 도입이후에 보수적 회계처리 정도와 적시성이 모두 증가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Jarva and Lantto(2010)은 핀란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핀란드회계기준을 IFRS로 전환시 회계정보의 보수주의와 가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핀란드회계기준에서 IFRS로 전환시 회계정보의 보수주의 및 적시성은 두 회계기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치 관련성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국내의 연구로는 여은정 등(2007)은 IFRS를 도입한 독일, 영국, 홍콩기업을 대상으로 IFRS의 도입 전·후를 기준으로 이익의 질과 재무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영국과 홍콩 기업의 경우는 이익의 질적 개선을 가져왔지만 독일 기업의 경우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재무비율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결론적으로 IFRS도입 전에 비해 도입 이후의 이익의 질과 재무비율이 개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강선민 등(2009)은 영국과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IFRS의 도입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는 두 나라 모두 증가하였으나 자본의 경우는 영국 기업은 증가하였으나 호주 기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식과 강선아(2010)는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1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유인과 도입 이후의 성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조기도입의 유인은 첫째,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내·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고 둘째, 금융감독원의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이고 셋째, 유형자산 등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넷째,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효익을 얻기 위함으로 조사되었다. 재무성과면은 자산과 부채는 증가하였으나 자본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송인만 등(2010)은 2009년도 국제회계기준을 조기도입한 국내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기도입 기업의 주요 특징과 재무제표 영향에 대해 실증사례를 연구하였다. 우선 조기도입한 기업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연결재무제표 의무 작성 기업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100%이상 증가하였고 재무제표 본문 계정과목의 수는 감소한 반면 주석의 양이 대폭 증가하였다.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각 기업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획일적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었고 손익계산서의 경우 영업이익이 표시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재무비율의 경우 연결대상의 증가로 인해 자산과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자본의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설정

국제회계기준은 기존의 한국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처럼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규정중심(rule-based)의 기준체계가 아닌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기준체계이다. 원칙주의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실무지침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중요시 여기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에 Haverly(2006), Ding et al.(2007), Hopkins et al.(2008)은 국제회계기준과 자국회계기준 하의 보고된 이익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상이한 회계기준으로 인해 인식되는 재무보고의 유연성(flexibility)차이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시 보고된 이익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이익의 지속성이 자국회계기준을 적용시 보고된 이익과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시 증가된 재무보고의 유연성은 결국은 경영자의 재량적 정보(예 : 사적인 정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증가된 경영자의 재량적 정보를 보고이익에 진실하게 보고한다면 자국회계기준 하에 보고된 이익보다는 미래현금흐름과의 지속성 또는 연관성이 클 것으로 본다. 하지만 만약 경영자가 재량적인 정보를 기회적으로 보고이익에 활용한다면 오히려 자국회계기준하에 보고된 이익보다는 미래현금흐름과의 지속성 또는 연관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는 앞 절의 국외 선행연구결과를 보았듯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증가된 재무보고의 유연성으로 인해 이익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자국회계기준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국내기업을 표본기업으로 두고 이에 대응되는 기업 즉 한국회계기준을 적용한 기업을 통제기업으로 두어 두 기준하에서의 이익지속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익의 지속성은 현재이익이 미래이익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Atwood et al.(2011)이 FASB와 IASB의 개념적 체계³⁾를 통해 이익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현재 이익(보고이익)과 미래 이익(보고이익, 현금이익)과의 연관관계로 초점을 두어 그들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익의 지속성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상반된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지는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귀무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설명에 있어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귀무가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적용시 이익의 지속성에는 차이가 없다.

3) 재무보고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FASB, 1978, Con 1 ; IASB, Paragraph 10).

III. 표본선정과 연구모형

1. 표본 선정

본 연구는 K-IFRS를 2009년과 2010년도에 조기도입하여 사전공시자료가 제공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K-GAAP과 K-IFRS 적용시 이익지속성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2011년도에 K-IFRS를 의무도입하기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1항 1호)에 따라 기업들로 하여금 조기도입의 자율권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허용하였다. 조기도입 기업들의 경우 도입 1년 전 동일회계기간에 K-GAAP과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가 공시되어 있다. 이에 표본기간은 도입 1년전⁴⁾인 2008년도와 2009년도로 본 연구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상장기업⁵⁾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표본 기업의 분포

시장구분		2008년		2009년		합 계	
		미도입	도입	미도입	도입	미도입(통제)	도입
KOSPI	전체표본	643	7	652	26	1,295	33
	유효표본	14	7	50	25	64	32

〈표 1〉은 연도별 표본기업 현황으로 2008년에 K-IFRS를 도입한 기업은 7개이며 2009년은 26개 기업으로 총 표본은 33개이다. 이는 전체 상장기업 기준 시 조기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2.5%(33/1,295)임을 볼 수 있다.

표본 선정기준을 보면 우선 첫째, 재무자료 및 업종성격이 상이한 조기 도입한 금융업은 제외하였다. 둘째, 모형설계 시 생략된 변수가 있는 표본을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유효표본 수는 32개이고 이에 대응되는 통제기업은 K-IFRS를 미도입한 기업으로 즉 K-GAAP을 적용한 동일연도, 동일업종, 자산규모가 유사한 기업으로 2배수인 64개 기업⁶⁾을 추출하였다.

표본은 사전공시 자료가 공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재무제표상의 재무자료 등을 추출하고 기타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Ⅱ에서 추출하였다.

4) 모형설계시 당기와 차기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표본연도를 도입 1년전으로 두었다.

5) 참고로 K-IFRS를 조기도입한 코스닥거래소 기업은 2008년도에 7개, 2009년도에 21개 기업으로 총 조기도입기업은 28개 기업이다.

6) 구체적인 표본과 통제기업명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2〉 업종별 표본의 분포현황

산업	업체수	산업	업체수
담배제조업	1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장비 제조업	8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수상운송업	2
통신업	1	전문서비스업	4
전 체		32	

〈표 2〉는 K-IFRS를 조기도입한 표본기업의 업종별 분포현황을 제시한 표이다. 업종별 분포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업종별로 업체수가 1개 정도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 전자부품, 화학물질, 전문서비스업 세 업종이 본 표본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익지속성 차이를 K-IFRS와 K-GAAP 적용시 비교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인 Atwood et al.(2011)의 연구모형을 응용하였다. 이익의 지속성은 현재이익이 미래이익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이는 Atwood et al.(2011)이 FASB와 IASB의 개념적 체계를 통해 이익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현재 이익(보고이익)과 미래 이익(보고이익, 현금이익)과의 연관관계로 초점을 두어 그들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EARN_{t+1} = KIFRS \times [\alpha_0 + \alpha_1 EARN_t + \alpha_2 LOSS_t + \alpha_3 EARN * LOSS + \alpha_4 SIZE_t] + KGAAP \times [\gamma_0 + \gamma_1 EARN_t + \gamma_2 LOSS_t + \gamma_3 EARN * LOSS + \gamma_4 SIZE_t] + control + \lambda + \epsilon \quad (1)$$

$$CFO_{t+1} = KIFRS \times [\beta_0 + \beta_1 EARN_t + \beta_2 LOSS_t + \beta_3 EARN * LOSS + \beta_4 SIZE_t] + KGAAP \times [\omega_0 + \omega_1 EARN_t + \omega_2 LOSS_t + \omega_3 EARN * LOSS + \omega_4 SIZE_t] + control + \lambda + \delta \quad (2)$$

변수를 정의하면,

$KIFRS$: 더미변수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경우 “1” 아니면 “0”

$KGAAP$: 더미변수로 한국회계기준인 경우 “1” 아니면 “0”

$EARN_{t+1}$: t+1기의 당기순이익(손실)/총자산

$EARN_t$: t기의 당기순이익(손실)/총자산

$LOSS_t$: 더미변수로 당기순손실은 “1” 아니면 “0”

- CFO_{t+1} : t+1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SIZE_i$: 기업규모(총자산의 로그화)
 $Control$: 기타 통제변수(연도 더미변수)
 λ : Heckman의 IMR(Inverse Mills Ratios)

첫째, 종속변수는 Atwood et al.(2011)의 연구에서 본 미래이익의 대리변수로 차기의 보고이익과 현금이익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EARN_{t+1}$)로, 현금이익은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_{t+1})으로 추출하였고 총자산으로 표준화시켰다.

둘째, 설명변수인 현재이익의 대리변수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EARN_t$)로 측정하였고 더미변수로는 K-IFRS인 경우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 또는 K-GAAP인 경우는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을 값을 부여하였다.

셋째, 보고이익이 음인 경우를 통제하기 위해 더미변수인 $LOSS$ 와 상호작용변수인 $EARN \times LOSS$ 을 포함하였다. Hayn(1995), Collins et al.(1999)은 미래이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보고이익이 양인 경우보다 음인 경우에 예측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Bartov et al.(2005)은 보고이익과 수익률(returns)과의 관계는 보고이익이 양인 경우와 음의 경우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런 차이는 상이한 두 회계기준 하에서는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구분하였다. Ndubizu and Sanchez(2006)은 IFRS보다 U.S.-GAAP인 경우 보고손실을 보고한 기업들의 이익의 지속성, 적시성, 보수주의가 더 큼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control$ 변수로는 기업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총자산으로 로그화하여 포함하였고 $time-effect$ 를 통제하기 연도더미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는 $\alpha_1(\beta_1)$ 과 $\gamma_1(\omega_1)$ 의 계수 값이다. 예를 들어 $\alpha_1(\beta_1)$ 의 계수값이 $\gamma_1(\omega_1)$ 의 계수값보다 유의하게 크다면 이는 기업들이 양의 이익을 보고할 때 이익의 지속성은 K-GAAP보다 K-IFRS를 적용한 경우가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K-IFRS를 적용한 경우 현재이익이 미래이익에 대한 예측력이 K-GAAP에 비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이익이 음인 경우의 미래이익과의 지속성 계수는 K-IFRS인 경우는 $\alpha_1 + \alpha_3(\beta_1 + \beta_3)$ 이고 K-GAAP인 경우는 $\gamma_1 + \gamma_3(\omega_1 + \omega_3)$ 계수값이다. 두 기준 중 산출된 계수값이 크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손실에 대한 적시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보수주의 성향이 더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표본은 K-IFRS를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한 기업으로 표본선택이 무작위추출(random selection)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표본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Heckman(1979)의 2SLS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본선정은 K-IFRS를 조기 도입한 본 연구의 표본기업 32개 기업과 통제기업인 64개 기업을 포함한 기업-년도 표본인 96개 기업을 대상으로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IMR(Inverse Mills

Ratios)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를 각 모형에 Lambda(λ) 변수로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Lambda(λ)변수도 유의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분석 결과도 다른 예측계수의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는 표본선택에 선택편의가 본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Hung and Subramanyam, 2007). Probit 모형의 설계는 Harris and Muller (1999), Leuz(2003), Hung and Subramanyam(2007)의 연구방법을 응용하였다.

Harris and Muller(1999), Leuz(2003), Hung and Subramanyam(2007)은 ROA가 높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기업규모가 크고, 비유동부채와 유상증자가 증가한 기업일수록 그리고 두 나라 이상에 교차상장된 기업일수록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 중 통제변수 중에서 교차상장기업변수는 제외하였고 김용식과 강선아(2010)의 연구에서 국내 K-IFRS를 조기도입유인 중에서 유형자산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다는 것을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을 포함하였다. K-IFRS을 도입기업의 특성을 나타낸 1단계 Probit 모형식은 아래와 같다.

$$K-IFRS = \alpha_0 + \alpha_1 ROA + \alpha_2 LEV + \alpha_3 PPE + \alpha_4 SIZE + \alpha_5 CS-D + \alpha_6 NDEBT + \alpha_7 \sum ID + \alpha_8 \sum YD + \epsilon$$

변수를 정의하면,

- $K-IFRS$: K-IFRS 조기도입기업이면 1, 아니면 0
- ROA : ROA(당기순이익(손실)/총자산)
- LEV :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 PPE : 유형자산(유형자산/총자산)
- $SIZE$: 기업규모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CS-D$: 자본금이 증가했으면 1, 아니면 0
- $NDEBT$: 비유동부채가 증가했으면 1, 아니면 0
- ID : 산업더미
- YD : 연도더미

〈표 3〉 Probit 모형 분석결과

	절 편	ROA	LEV	PPE	$SIZE$	$CS-D$	$NDEBT$	더미	조정 R^2
계수 (t값)	-0.9255 (-4.6692)***	0.0445 (0.3490)	0.1310 (2.0948)**	-0.0152 (-0.2450)	0.0793 (4.5545)***	0.0283 (1.2990)	-0.0138 (-0.5344)	포함	0.20
표본	96								

(주) 1.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3>은 Probit 모형 분석결과로 선행연구인 Harris and Muller(1999), Leuz(2003), Hung and Subramanyam(2007)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IV. 실증분석결과

<표 4>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적 통계치

기준	변수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유효표본
<i>K-IFRS</i> (표본집단)	$EARN_{t+1}$	0.0316	0.0382	0.0900	-0.3261	0.2286	32
	CFO_{t+1}	0.0587	0.0495	0.0707	-0.0480	0.2220	
	$EARN_t$	0.0346	0.0360	0.0717	-0.2074	0.1841	
	$SIZE_t$	12.0460	11.8541	0.8239	10.7058	13.9524	
	$LOSS_t$	22%					
<i>K-GAAP</i> (통계집단)	$EARN_{t+1}$	0.0455	0.0458	0.0745	-0.1779	0.3416	64
	CFO_{t+1}	0.0648	0.0547	0.0684	-0.0717	0.2688	
	$EARN_t$	0.0326	0.0291	0.0896	-0.3086	0.3400	
	$SIZE_t$	11.9478	11.7479	0.6476	10.6676	13.3864	
	$LOSS_t$	19%					

- (주) 1. K-IFRS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K-GAAP : 한국회계기준
 3. $EARN_{t+1}$: t+1기의 당기순이익(손실)/총자산
 4. CFO_{t+1} : t+1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5. $EARN_t$: t 기의 당기순이익(손실)/총자산
 6. $SIZE_t$: t 기의 기업규모(총자산의 로그화)
 7. $LOSS_t$: 당기순손실 비율

K-IFRS 적용시를 보면 차기 보고이익인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EARN_{t+1}$)은 0.0316값으로 K-GAAP 적용시 0.0455값 보다는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_{t+1})도 K-GAAP 적용시가 더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당기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EARN_t$)과 기업규모($SIZE_t$)는 K-IFRS와 K-GAAP 적용시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당기의 당기순손실의 비율은 K-IFRS 적용시 22%인 반면 K-GAAP 적용시 19%임을 보여주었다. 비율은 K-IFRS 적용시 약간 높지만 평균값의 경우는 K-IFRS 적용시 -0.0577값인 반면 K-GAAP인 경우는 -0.0850값으로 손실금액의 크기는 K-GAAP 적용시 더 큼을 볼 수 있다.

〈표 5〉 Pearson상관관계

	$EARN_{t+1}$	CFO_{t+1}	$EARN_t$	$LOSS_t$	$SIZE_t$
$EARN_{t+1}$		0.425***	0.553***	-0.276**	0.206**
CFO_{t+1}	0.450***		0.267***	-0.117	0.168*
$EARN_t$	0.690***	0.309*		-0.664	0.104
$LOSS_t$	-0.526**	-0.261	-0.692		-0.052
$SIZE_t$	0.258**	0.250*	0.228	-0.714	

(주) 1. 변수측정방법은 <표 4>를 참조.

2. K-GAAP적용시, K-IFRS적용시

3.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표 5>는 주요 변수간의 Pearson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당기의 보고이익($EARN_t$)과 차기의 보고이익($EARN_{t+1}$)과의 상관관계는 K-IFRS 적용시 0.690값을 K-GAAP 적용시 0.553값으로 두 기준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기 보고이익과 미래 현금이익과의 관계도 K-IFRS 적용시 0.309값을 K-GAAP 적용시 0.267값으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이익이 음($LOSS_t$)인 경우를 보면 미래 보고이익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K-GAAP인 경우는 -0.276값을 K-IFRS 적용시는 -0.526값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래 현금이익과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통제변수인 기업규모($SIZE_t$)변수를 보면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미래 이익(보고이익, 현금이익)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6〉 주요 재무비율-집단별비교

변 수	표본기업		통제기업 (K-GAAP) : C	도입년도/ 도입전년도 (B/A)	표본기업/ 통제기업 (B/C)
	도입전년도 (K-GAAP) : A	도입년도 (K-IFRS) : B			
$EARN$	0.0244	0.0346	0.0326	0.0102(0.6085)	0.0002(0.1151)
CFO	0.0710	0.0667	0.0500	-0.0043(-0.1546)	0.0167(0.7838)
PPE	0.3322	0.3301	0.3750	-0.0021(-0.1341)	-0.0449(-0.9751)
LEV	0.4817	0.5122	0.4741	0.0305(0.8474)	0.0381(0.7326)
$SIZE$	11.9779	12.0460	11.9478	0.0681(2.6072)***	0.0982(1.6097)
$NDEBT$	0.3245	0.3320	0.3642	0.0075(0.1873)	-0.0322(-0.4972)
유효표본	32		64		

- (주) 1. *PPE* : 유형자산비율(유형자산/총자산)
 2.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3.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LOG)
 4. *NDEBT* : 비유동부채비율(비유동부채/총부채)
 5. 기타 변수측정방법은 <표 4>를 참조.
 6.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7. ()값은 t값

<표 6>은 K-IFRS의 도입에 따른 재무비율의 변화를 도입전(통제기업)과 비교하여 평균값차이를 분석하였다. 상이한 기준 하에 적용된 재무비율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표본기업의 수익성지표인 K-IFRS 도입전 당기순이익(손실)값이 0.0244인 반면 도입년도는 0.0346값으로 상승되었음을 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성은 없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도입전년도에 비해 도입년도에 감소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성은 없었다.

유형자산의 경우 K-IFRS를 도입하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로 자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8년에 K-GAAP 제5호 “유형자산”을 개정하면서 유형자산을 원가모형만으로 평가하던 것을 재평가모형을 도입함으로써 2008년에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기업은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자산효과는 미비해지기 때문에 보고 있다(김용식의, 2010). 부채비율의 경우 도입전년도에 3.0%로 상승되었고 부채비율의 구성항목 중 비유동부채도 0.75%상승되었음을 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다. 기업규모인 총자산의 경우 도입전년도에 6.8%로 상승되었고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김용식과 강선아(2010)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표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자산의 증가원인 중 유동자산의 증가원인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K-GAAP에서는 금융자산의 양도를 통제접근법만 규정하였으나 K-IFRS에서는 통제접근법뿐만 아니라 위험과 보상접근법과 지속적 관여 접근법까지 규정하여 기존의 금융자산의 양도로 처리한 것을 담보부차입거래로 수정하고 있어 유동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한 예로 볼 수 있다.

둘째, K-IFRS 도입년도 기준으로 표본기업과 통제기업을 비교하면 표본기업이 수익성지표인 당기순이익(손실)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더 양호함을 볼 수 있다. 기타 기업특성 변수인 부채비율, 기업규모는 K-GAAP을 적용하는 통제집단에 비해 높음을 볼 수 있고 유형자산과 비유동부채는 조금 더 낮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균값 차이검정결과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표 7〉 회귀분석결과 I

$$EARN_{t+1} = KIFRS \times [\alpha_0 + \alpha_1 EARN_t + \alpha_2 LOSS_t + \alpha_3 EARN * LOSS + \alpha_4 SIZE_t] + KGAAP \\ \times [\gamma_0 + \gamma_1 EARN_t + \gamma_2 LOSS_t + \gamma_3 EARN * LOSS + \gamma_4 SIZE_t] + control + \lambda + \epsilon \quad (1)$$

	<i>K-IFRS</i>		<i>K-GAAP</i>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절편 값	0.1250 (0.6536)	0.0622 (0.2429)	0.1759 (3.0153)**	0.1420 (2.1154)**
$EARN_t$	0.7414 (2.2016)**	0.7252 (2.1013)**	0.4218 (6.8255)**	0.4305 (6.9015)**
$LOSS_t$	-0.0291 (-0.5551)	-0.0337 (-0.6163)	0.0309 (3.0094)**	0.0315 (3.0608)**
$EARN_t * LOSS_t$	-0.0519 (-0.0992)	-0.0403 (-0.0757)	0.1947 (2.2597)**	0.1809 (2.0744)**
$SIZE_t$	0.0120 (0.7356)	0.0080 (0.4069)	0.0184 (3.6337)**	0.0156 (2.7423)**
<i>control</i>	포함		포함	
λ		-0.0145 (-0.3768)		-0.0015 (-1.0231)
<i>F</i> 값	5.10	4.12	46.24	38.71
조정 R^2	0.40	0.37	0.33	0.33
계수의 동질성 검정	모형1/모형3	모형2/모형4		
$EARN : \alpha_1 = \gamma_1$	0.3196 (3.0420)**	0.2947 (2.1103)**		
$EARN * LOSS : \alpha_3 = \gamma_3$	-0.2466 (-1.0021)	-0.2212 (-0.6327)		
$EARN + EARN * LOSS : \alpha_1 + \alpha_3 = \gamma_1 + \gamma_3$	0.0730 (0.0952)	0.0735 (0.1103)		
유효관측수	32		64	

- (주) 1. $LOSS_t$: 더미변수로 당기순손실 “1”, 아니면 “0”
 2. λ : Heckman의 IMR(Inverse Mills Ratios)
 3. 기타 변수추정방법은 <표 4>를 참조.
 4.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5. ()값은 t값

<표 7>은 본 연구의 주요 회귀분석 결과로 주요 관심변수는 α_1 과 γ_1 의 계수 값이다. 우선 모형 1과 모형 2의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회귀분석 계수 값을 보면 α_1 의 경우 0.7414값을 γ_1 은 0.4218값을 보여주고 있고 두 계수값의 차이검정결인 0.3196값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양의 이익을 보고할 때 이익의 지속성은 K-GAAP보다 K-IFRS 적용시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K-IFRS 적용시 현재 보고이익이 양인 경우 미래 보고이익에 대한 예측력이 K-GAAP 적용시보다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보고이익이 음인 경우를 보면 K-IFRS 적용시 $0.6895(\alpha_1 + \alpha_3)$ 값으로 양의 보고이익 경우인 $0.7414(\alpha_1)$ 값보다 더 낮은 계수값을 보여주고 두 계수간의 차이 값인 $-0.0519(\alpha_3)$ 은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 적용시는 $0.6165(\gamma_1 + \gamma_3)$ 값으로 양의 보고이익일 경우 $0.4218(\gamma_1)$ 값보다 더 높은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고 두 계수의 차이 값인 $0.1947(\gamma_3)$ 은 유의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K-GAAP 적용시 보고이익이 음인 경우가 양인 경우에 비해 이익에 대한 적시성이 더 있음을 볼 수 있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두 기준하의 보고이익인 음의 경우를 보면 K-IFRS 적용시는 $0.6895(\alpha_1 + \alpha_3)$ 값을 K-GAAP 적용시는 $0.6165(\gamma_1 + \gamma_3)$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계수 차이값인 0.0730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로 람다(λ)값을 포함시킨 모형 3과 모형 4의 전체적인 분석결과도 모형 1과 모형 2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하 생략하였다. 현재의 보고이익이 미래 보고이익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력을 보면 K-IFRS인 경우는 대략 39%인 반면 K-GAAP인 경우는 33%정도로 K-IFRS 적용시가 설명력이 더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8>은 현재 보고이익과 미래 현금이익과의 회귀분석결과이다. 우선 모형 1과 모형 2의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보고이익이 양인 경우 미래 현금이익과는 K-IFRS 적용시 $0.2796(\beta_1)$ 값으로 K-GAAP 적용시 $0.3890(\omega_1)$ 값보다 더 작은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다. 두 계수의 동질성 검정 결과도 -0.1094 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인 Lambda(λ)값을 포함한 분석결과도 두 계수값의 차이가 0.1150 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K-IFRS보다 K-GAAP 적용시 현재 보고이익이 미래 현금이익에 대한 예측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보고이익의 음인 경우 미래 현금이익과의 관계를 보면 K-IFRS 적용시 계수값을 보면 $0.1374(\beta_1 + \beta_3)$ 값으로 양의 보고이익일 경우 $0.2796(\beta_1)$ 값보다 더 낮은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고 두 계수의 차이인 $-0.1422(\beta_3)$ 값은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 적용시 계수값을 보면 $0.3640(\omega_1 + \omega_3)$ 값으로 양의 보고이익일 경우 $0.3890(\omega_1)$ 값보다 더 낮은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계수의 차이인 $-0.0250(\gamma_3)$ 값은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회귀분석결과 II

$$CFO_{t+1} = KIFRS \times [\beta_0 + \beta_1 EARN_t + \beta_2 LOSS_t + \beta_3 EARN * LOSS + \beta_4 SIZE_t] + KGAAP \\ \times [\omega_0 + \omega_1 EARN_t + \omega_2 LOSS_t + \omega_3 EARN * LOSS + \omega_4 SIZE_t] + control + \lambda + \delta \quad (2)$$

	<i>K-IFRS</i>		<i>K-GAAP</i>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절편 값	0.1323 (1.6744)*	0.1218 (1.6490)*	0.1724 (2.4723)***	0.1977 (2.4619)***
$EARN_t$	0.2796 (1.9097)*	0.2692 (1.8593)*	0.3890 (3.7987)***	0.3842 (3.6749)***
$LOSS_t$	-0.0111 (-0.6062)	-0.0141 (-0.2501)	0.0185 (1.5089)	0.0181 (1.4711)
$EARN_t * LOSS_t$	-0.1422 (-0.2654)	-0.1348 (-0.2465)	-0.0250 (-0.2426)	-0.0147 (-0.1412)
$SIZE_t$	0.0147 (0.8731)	0.0121 (0.6952)	0.0197 (3.2609)***	0.0217 (3.1810)***
<i>control</i>	포함			
λ		-0.0094 (-0.2363)		0.0011 (0.6358)
$F_{값}$	4.90	4.87	12.05	10.09
조정 R^2	0.04	0.04	0.11	0.11
계수의 동질성 검정	모형1/모형3		모형2/모형4	
$EARN : \beta_1 = \omega_1$	-0.1094 (2.9501)***		-0.1150 (2.8275)***	
$EARN * LOSS : \beta_3 = \omega_3$	-0.1172 (-0.2740)		-0.1201 (-0.2927)	
$EARN + EARN * LOSS : \beta_1 + \beta_3 = \omega_1 + \omega_3$	-0.2266 (-0.0212)		-0.2351 (-0.0410)	
유효관측수	32		64	

(주) 1. $LOSS_t$: 더미변수로 당기순손실 “1”, 아니면 “0”

2. λ : Heckman의 IMR(Inverse Mills Ratios)

3. 기타 변수측정방법은 <표 4>를 참조.

4.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5. ()값은 t값

두 기준하의 보고이익이 음의 경우를 보면 K-IFRS 적용시 $0.1374(\beta_1 + \beta_3)$ 값인 반면 K-GAAP 적용시 $0.3640(\omega_1 + \omega_3)$ 값으로 더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수값의 동질성 검정 결과 두 계수차이인 -0.2266 값은 유의성이 없음을 볼 수 있다.

현재의 보고이익이 미래 현금이익에 대한 예측력을 보면 K-IFRS 적용시 대략 4%인 반면 K-GAAP인 경우는 11%정도로 <표 7>의 미래 보고이익에 대한 설명력보다는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상관관계에서 보았듯이 당기의 발생주의 관점인 보고이익이 미래 현금주의 관점인 이익 보다는 미래 발생주의 관점의 이익과의 관련성 더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통제변수로 람다(λ)값을 포함시킨 모형 3과 모형 4의 전체적인 분석결과도 모형 1과 모형 2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하 생략하였다.

전체적으로 Lambda(λ)값을 보면 계수 값도 유의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분석 결과도 다른 예측계수의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음을 볼 수 있어 이는 표본선택편의가 본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현재 보고이익이 양인 경우는 K-GAAP보다는 K-IFRS 적용시 미래 보고이익과의 지속성이 더 높음을 볼 수 있지만 미래 현금이익과의 지속성은 K-IFRS 보다는 K-GAAP 적용시 예측력이 더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보고이익이 음인 경우는 K-GAAP인 경우가 미래 이익(보고이익, 현금이익)에 대한 예측력이 K-IFRS 적용시보다 예측력이 더 있음을 볼 수 있지만 두 계수의 동질성 검정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어 K-GAAP 적용시 손실에 대한 적시성 또는 보수적인 성향이 더 있다고 단정짓기는 무리라고 본다.

♥ 추가분석

본 연구는 이익의 지속성에 관한 비교분석을 위해 동일연도, 동일업종, 자산규모가 유사한 기업을 통제집단을 두어 K-IFRS와 K-GAAP 적용시 비교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실증분석에서 서로 다른 연구대상기업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연구모형 설정의 문제⁷⁾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에 추가적으로 K-IFRS를 도입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K-IFRS 도입전⁸⁾과 후의 이익지속성차이를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7) 서로 다른 연구대상기업과 분석기간을 비교하는 연구모형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라는 가정을 해야 하므로 생략변수(omitted variables)로 인한 모형의 bias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8) 도입전의 표본연도는 K-IFRS도입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K-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의 경우 도입전의 이익지속성 차이분석연도는 2006년도와 2007년도로 하였다.

〈표 9〉 회귀분석결과 Ⅲ

$$EARN_{t+1} = After \times [\alpha_0 + \alpha_1 EARN_t + \alpha_2 LOSS_t + \alpha_3 EARN * LOSS + \alpha_4 SIZE_t] + Before \\ \times [\gamma_0 + \gamma_1 EARN_t + \gamma_2 LOSS_t + \gamma_3 EARN * LOSS + \gamma_4 SIZE_t] + control + \lambda + \epsilon$$

$$CFO_{t+1} = After \times [\beta_0 + \beta_1 EARN_t + \beta_2 LOSS_t + \beta_3 EARN * LOSS + \beta_4 SIZE_t] + Before \\ \times [\omega_0 + \omega_1 EARN_t + \omega_2 LOSS_t + \omega_3 EARN * LOSS + \omega_4 SIZE_t] + control + \lambda + \delta$$

	$EARN_{t+1}$		CFO_{t+1}	
	도입후 (K-IFRS)	도입전 (K-GAAP)	도입후 (K-IFRS)	도입전 (K-GAAP)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절편값	0.1250 (0.6536)	0.4997 (2.6597)	0.1323 (1.6744)*	0.6485 (3.5441)***
$EARN_t$	0.7414 (2.2016)**	0.4378 (1.9497)*	0.2796 (1.9097)*	0.6623 (2.7179)***
$LOSS_t$	-0.0291 (-0.5551)	-0.0323 (-0.5868)	-0.0111 (-0.6062)	-0.0420 (-0.7841)
$EARN_t * LOSS_t$	-0.0519 (-0.0992)	-0.0620 (-0.0980)	-0.1422 (-0.2654)	-0.5120 (-1.6429)
$SIZE_t$	0.0120 (0.7356)	0.0443 (2.7138)***	0.0147 (0.8731)	0.0579 (3.6430)***
control	포함			
F값	5.10	6.32	4.90	8.94
조정 R^2	0.40	0.46	0.04	0.56
계수의 동질성 검정	모형1/모형2		계수의 동질성 검정	모형3/모형4
$EARN : \alpha_1 = \gamma_1$	0.3036 (0.6003)		$EARN : \beta_1 = \omega_1$	-0.3827 (-1.9436)*
$EARN * LOSS : \alpha_3 = \gamma_3$	0.0101 (0.0088)		$EARN * LOSS : \beta_3 = \omega_3$	0.3698 (0.3554)
$EARN + EARN * LOSS : \alpha_1 + \alpha_3 = \gamma_1 + \gamma_3$	0.3137 (0.8100)		$EARN + EARN * LOSS : \beta_1 + \beta_3 = \omega_1 + \omega_3$	-0.0129 (-0.0450)
유효관측수	32			

- (주) 1. *After* : 더미변수로 도입후 “1”, 도입전 “0”
 2. *Before* : 더미변수로 도입전 “1”, 도입후 “0”
 3. 기타 변수측정방법은 <표 4>를 참조.
 4. ***, **, *은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정)
 5. ()값은 t값

첫째, 현재 보고이익과 미래 보고이익과의 지속성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보고이익이 양인 경우 K-IFRS 적용시 α_1 의 경우 0.7414값을, K-GAAP 적용시 γ_1 은 0.4378값을 보여주고 있고 두 계수값의 차이인 0.3036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수값의 크기는 <표 7>의 회귀분석결과와 유사하나 계수의 동질성검증에서는 본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보고이익이 음인 경우를 보면 K-IFRS 적용시 $0.6895(\alpha_1 + \alpha_3)$ 값으로 양의 보고이익 경우인 0.7414(α_1)값보다 더 낮은 계수값을 보여주고 두 계수간의 차이 값인 $-0.0519(\alpha_3)$ 은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K-GAAP 적용시는 $0.3758(\gamma_1 + \gamma_3)$ 값으로 양의 보고이익일 경우 0.4378(γ_1)값보다 더 낮은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고 두 계수의 차이 값인 $-0.0620(\gamma_3)$ 은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기준하의 보고이익인 음의 경우를 보면 K-IFRS 적용시 $0.6895(\alpha_1 + \alpha_3)$ 값과 K-GAAP 적용시 $0.3758(\gamma_1 + \gamma_3)$ 값의 차이 계수값인 0.3137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현재 보고이익과 미래 현금이익과의 지속성을 보면 보고이익이 양인 경우 미래 현금이익과는 K-IFRS 적용시 $0.2796(\beta_1)$ 값으로 K-GAAP 적용시 $0.6623(\omega_1)$ 값보다 더 작은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다. 두 계수의 동질성 검정결과 -0.3827 값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이익의 음인 경우 미래현금이익과의 관계를 보면 K-IFRS 적용시 계수값을 보면 $0.1374(\beta_1 + \beta_3)$ 값으로 양의 보고이익일 경우 $0.2796(\beta_1)$ 값보다 더 낮은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고 두 계수의 차이인 $-0.1422(\beta_3)$ 값은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K-GAAP 적용시 계수값을 보면 $0.1563(\omega_1 + \omega_3)$ 값으로 양의 보고이익일 경우 $0.6623(\omega_1)$ 값보다 더 낮은 계수값을 보여주고 두 계수의 차이인 $-0.5120(\gamma_3)$ 값도 유의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기준하의 보고이익이 음의 경우를 보면 K-IFRS 적용시 $0.1374(\beta_1 + \beta_3)$ 값인 반면 K-GAAP 적용시 $0.1563(\omega_1 + \omega_3)$ 값으로 더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계수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유의성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추가분석결과도 <표 7>과 <표 8>의 회귀분석결과와 거의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V. 결 론

2011년도 국내의 모든 상장법인이 K-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은 K-IFRS가 적용해서 산출된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기존의 K-GAAP에 비해 개선될지 여부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11년도 K-IFRS를 의무도입하기 이전에 기업들로 하여금 조기도

입의 자율권을 허용한 2009년도와 2010년도 조기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의 지속성을 K-GAAP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K-IFRS를 조기 도입한 32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고 이에 대응되는 통제기업은 K-GAAP을 적용한 동일연도, 동종업종, 자산규모가 동일한 64개 기업을 추출하였다. 이익의 지속성은 Atwood et al.(2011)이 주장한 FASB와 IASB의 개념적 체계를 통해 이익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현재 이익과 미래 이익과의 연관관계로 설명하였다. 현재이익의 대리변수는 보고이익인 당기의 당기순이익(손실)으로 보고 미래이익의 대리변수는 보고이익인 차기 당기순이익(손실)과 현금이익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측정하였다. 추가적으로 K-IFRS를 도입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K-IFRS 도입전과 후의 이익지속성 차이를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현재 보고이익인 양인 경우는 미래 보고이익에 대한 예측력은 K-GAAP보다는 K-IFRS 적용시가 보고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더 높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미래 현금이익에 대한 예측력은 K-IFRS보다는 K-GAAP 적용시 더 높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현재 보고이익이 음인 경우는 K-GAAP인 경우가 미래 이익(보고이익, 현금이익)에 대한 예측력에 대한 계수값이 K-IFRS 적용시 보다는 더 높음을 볼 수 있었지만 두 계수의 동질성 검정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K-GAAP 적용시 손실에 대한 적시성 또는 보수적인 성향이 더 있다고 결론짓기는 무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공헌점은 K-IFRS 대 K-GAAP의 이익의 지속성을 비교분석한 국내 초기연구로 본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K-IFRS의 도입에 따른 이익의 질 등에 관련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생각한다. 또한 한계점으로는 시기적으로 이른 연구로 계량정보가 한정되어 이익의 질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고 이익의 지속성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선민 · 한봉희 · 황인태. 2009. “국제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영국과 호주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저널 제18권 제2호 : 281 - 312.
- 김용식 · 강선아. 2010. “K - IFRS조기 도입 유인과 성과분석”,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 89 - 115.
- 여은정 · 고윤성 · 김지홍. 2007.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 IFRS 도입국(독일, 영국,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19권 : 175 - 201.
- 송인만 · 양동훈 · 김인숙. 2010. “IFRS 조기 도입의 주요 특징 및 재무제표 영향”. 회계저널 제19권 제2호 : 345 - 370.
- Ashbaugh. H. 2001. Non - US Firms' Accounting Standards Choice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0(2) : 129 - 153.
- _____, Olsson, P., 2002. An exploratory study of the valuation properties of cross - listed firms. IAS and U.S. GAAP earnings and book values. *The Accounting Review* 77 : 107 - 126.
- Atwood. T. J., S. D. Michael., J. N. Myers., and L. A. Myers. 2011. Do Earnings Reported under IFRS Tell US More about Future Earnings and Cash Flow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30(4) : 1 - 40.
- Balsari. C. K., S. Ozkan., and M. G. Durak. 2010. Earnings Conservatism in the Pre and Post IFRS Adoption Periods in Turkey : Panel Data Evidence on the Firm Specific Factors. *Working Paper* : 1 - 23.
- Barth. M. E., W. R. Landsman., M. H. Lang. 2008.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3) : 467 - 498.
- Bartov, E., Goldberg, S.R., Kim, M., 2005. Comparative value relevance among German, U.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A German stock market perspective.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20 : 95 - 119.
- Chen, H., Tang, Q., Jiang, Y., Lin, Z., 2010.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quality : evidence from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21 : 220 - 278.
- Christensen. H. B., E. Lee., and M. Walker. 2008. Incentives or Standards : What Determines Accounting Quality Change Around IFRS Adoption?. *Working Paper* : 1 - 40.
- Collins, D., Pincus, M., Xie, H., 1999. Equity valuation and negative earnings : The role of book value of equity. *The Accounting Review* 74 : 29 - 61.
- Ding, Y., Hope, O. K., Jeanjean, T., Stoliwy, H., 2007.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and IAS : Measurement,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6 : 1 - 38.
- Ernstberger, J., Krotter, S., Stadler, C., 2008. Analysts' forecast accuracy in Germany : the effect of different accounting principles and changes of accounting principles. *BuR - Business Research* 1 : 26 - 53.

- Gordon, E., Jorgensen, B., Linthicum, C., 2008. Could IFRS Replace US GAAP? A Comparison of Earnings Attributes and Informativeness in the US Market. *Working paper*, Templ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Texas, San Antonio.
- Hayn, K., 1995. The information content of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0 : 125 – 153.
- Harris, M., and Muller, K. 1999. The Market Valuation of IAS versus US GAAP Accounting Measures Using Form 20–F Reconcili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6(1–3) : 285 – 312.
- Heckman,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1) : 153 – 161.
- Hung, M., and K. R. Subramanyam. 2007. Financial Statement Effects of Adop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The Case of German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2(4) : 623 – 657.
- Haverty, J. L., 2006. Are IFRS and U.S. GAAP converging? Some evidence from People's Republic of China companies list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s.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5 : 48 – 71.
- Hopkins, P. E., Botosan, R. L., Bradshaw, M., Callahan, C., Ciesielski, J., Farber, D., Kohlbeck, M., Hodder, L., Laux, B., Stober, T., Stocken, P., Yohn, T., 2008. Response to the SEC release "acceptance from foreign private issuers of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ithout reconciliation to U.S. GAAP",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s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Section of the Financial Reporting Policy Committee. *Accounting Horizons* 22 : 223 – 240.
- Ismail, W. A. W., K. Dunstan., and T. V. Zijl. 2010. Earnings Quality and The Adoption of IFRS – based Accounting Standards : Evidence From an Emerging Market. *Working Paper* : 1 – 29.
- Jarva, H and A. M. Lentto. 2010. The Value – Relevance of IFRS versus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 Evidence from Finland. *Working Paper* : 1 – 42.
- Jeanjean, T., Stolowy, H., 2008. Do accounting standards matter? An exploratory analysis of earnings management before and after IFRS adop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7 : 480 – 494.
- Leuz, C. 2003. IAS versus U.S. GAAP : Information Asymmetry – based Evidence from Germany's New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3) : 445 – 427.
- Ndubizu, G. A., Sanchez, M. H., 2006. The valuation properties of earnings and book value prepared under US GAAP in Chile and IAS in Peru.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5 : 140 – 170.
- Niskanen, J., Kinnunen, J., Kasanen, K., 2000. The value – relevance of IAS reconciliation components : Empirical evidence from Finland.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 : 119 – 137.
- Tendeloo, B. V., and A. Vanstraelen. 2005. Earnings Management under German GAAP versus IFRS. *European Accounting Review* 14(1) : 155 – 180.

A Comparison of Earnings Persistence under Korean GAAP versus IFRS

Moon, Hyunju*

〈Abstract〉

This research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32 domestic listed companies which early adopted K-IFRS in 2009 and 2010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durability of profits, comparing with 64 companies of the same kind for the same years that adopted K-GAAP as the controlled group.

The earnings persistence can be measured by how well current profits can explain future profits. I analyzed this, focusing on correlations between the current profits (reported profits) that represent the quality of profits and the future cash flow (reported profits, cash flows) with the same research methodology and viewpoints as the conceptual system of FASB and IASB of Atwood et al.(2011). Since sampling of the companies that early adopted K-IFRS voluntarily is not random sampling, the sample selection bias may exist. So in this research, Heckman(1979)'s 2SLS method was used to control the sample election bi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current reported profits were positive, the earnings persistence was found to be higher in the case of applying K-IFRS than in the case of applying K-GAAP, and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predictive power with regard to future reported profits is higher in application of K-IFRS than in application of K-GAAP. However, I find that earnings reported under K-GAAP ar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future cash flows than earnings reported under K-IFRS.

Second, when current reported profits are negative, the predictive power with regard to the future profits (reported profits, cash flows) is higher in application of K-GAAP than in application of K-IFRS. However this difference is not significant.

The country's all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adopt K-IFRS in 2011, so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considered that this early research will contribute to recognizing the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bout adopting K-IFRS. Although this research was made on the early adoption companies, this research will be of help to predicting changes in value relations of accounting information when mandatory adoption companies change from K-GAAP to K-IFRS.

〈Key words〉 K-IFRS, K-GAAP, earnings persistence, early adoption compani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unmoon University

〈부 록〉

연 도	표본기업	통제기업	
2008년	(주)케이티앤지	선창산업(주)	휴켄스(주)
	이건산업(주)	한솔제지(주)	한올바이오파마(주)
	페이퍼코리아(주)	태림포장공업(주)	일양약품(주)
	코스모화학(주)	아세아제지(주)	홍아해운(주)
	영진약품공업(주)	무림페이퍼(주)	현대상선(주)
	STX팬오션(주)	깨끗한나라(주)	평화홀딩스(주)
	(주)풀무원홀딩스	KG케미칼(주)	대성홀딩스(주)
2009년	(주)한솔홈데코	신대양제지(주)	(주)코리아씨키트
	세하(주)	신평제지(주)	(주)케이이씨
	백광산업(주)	동일제지(주)	(주)이수페타시스
	(주)LG화학	(주)한창제지	(주)신성솔라에너지
	(주)LG생활건강	애경유화(주)	(주)동부하이텍
	(주)LG생명과학	호남석유화학(주)	한라공조(주)
	(주)화승알앤에이	대한유화공업(주)	웅진코웨이(주)
	LG전자(주)	(주)한화	한일이화(주)
	LG이노텍(주)	(주)케이피케미칼	대원강업(주)
	엘지디스플레이(주)	(주)노루포인트	(주)현대미포조선
	삼성SDI(주)	(주)한독약품	(주)한진중공업
	삼성테크윈(주)	(주)종근당	이화산업(주)
	삼성전자(주)	동일고무벨트(주)	(주)한창
	삼성전기(주)	넥센타이어(주)	(주)신흥
	(주)에이엔피	한솔테크닉스(주)	(주)모나미
	STX엔진(주)	코스모신소재(주)	(주)케이에스에스해운
	한국프랜지공업(주)	웅진에너지(주)	현대상선(주)
	STX조선해양(주)	에스케이씨(주)	SK텔레콤(주)
	휠라코리아(주)	삼화전기(주)	(주)케이티
	신일산업(주)	삼영전자공업(주)	SK(주)
	대한해운(주)	디피씨(주)	한세에스24홀딩스(주)
	(주)LG유플러스	동원시스템즈(주)	(주)GS
	한국신용정보(주)	대덕GDS(주)	(주)티이씨엔코
	(주)LG	대덕전자(주)	(주)노루홀딩스
	(주)지투알	(주)하이닉스반도체	(주)풍산홀딩스